

제주 중산간 일대 “신이주민”의 지리적 상상, 인식, 실천

2019년 11월 15일(금)

전남대학교 박경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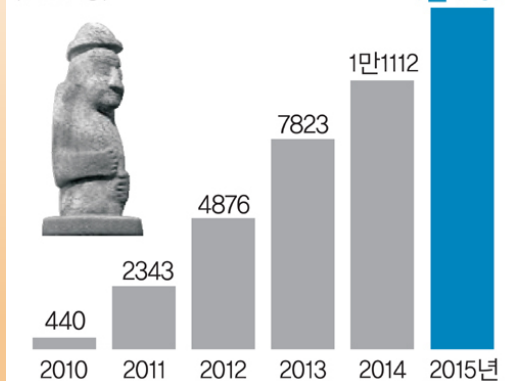
Copyright ©,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1. “new” migrants in Jeju?

<경향신문 2013.8.12>

“제주 인구가 60만명을 돌파했다. 1987년 50만명을 넘어선 이래 26년 만의 일이다. [...] 제주도는 13일 도청 정문 광장에서 ‘제주 인구 60만 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제주 인구 60만명은 ‘**신이민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입증한다.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즐기려는 은퇴자들의 이주가 60만명 돌파에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의 순유입인구율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수 이효리씨가 제주시 애월읍에 집을 짓고 있는 등 유명인들의 제주 이민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 추이
(단위: 명)



자료: 한국은행제주본부

Copyright ©,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염미경, 2015; 2019>

- 이주 주체의 특성: 국제 결혼 이주, 귀농 및 귀촌 인구, 은퇴자 증가
- 구조적 변동: 관광 복합단지 개발, IT기업의 이전, 국제학교 유치와 투자 유치에 따른 이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이주민을 “원주민에 비해 모든 것이 불리한 minority”로 설정: 집중 거주와 향우회 등의 모임 설명의 근거

<이영권, 2015, 상기 논문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이주민을 “원주민에 비해 모든 것이 불리한 minority”로 설정
- 집중 거주와 향우회 등의 모임 형성 설명 접근

<김민영·최현, 2015>

- 2010년 이후 ‘신 이주 현상’에 주목 하여 이주 유형을 분류
 - ① 귀농 및 귀촌, 창업 정착을 포함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 제주에 정착하는 유형: 게스트하우스, 펜션, 카페, 레스토랑 등 자영업 위주
 - ② 새로운 문화 및 예술을 위해 정착하는 유형: 예술가 중심으로 구성. 창작 활동
 - ③ 기업 이전 정착과 교육 정착 등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착 유형

<기타> 이주의 다층화: education migrants, healthcare migrants, venture business migrants etc.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2. Three waves of inland immigration to Jeju

- 제1차 성장기: 해방 이후 및 6·25전쟁 이후 귀환 이주 (예외: 제주 4·3항쟁 직후의 인구 감소)
- 제2차 성장기(산업화, 농업 및 관광 기반 형성기): 1970~1980년대는 관광산업 개발과 감귤 산업 등 국가 주도 정책으로 인구증가 → 1987년 50만 돌파
- 정체기(안정기):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완만한 성장 추세를 유지
- 제3차 성장기: 2010년대 초반 이후 인구 유입이 가속화 → 2013년 60만명 돌파, 2018년 현재 68만명에 도달

〈표 3〉 제주 유입인구의 지역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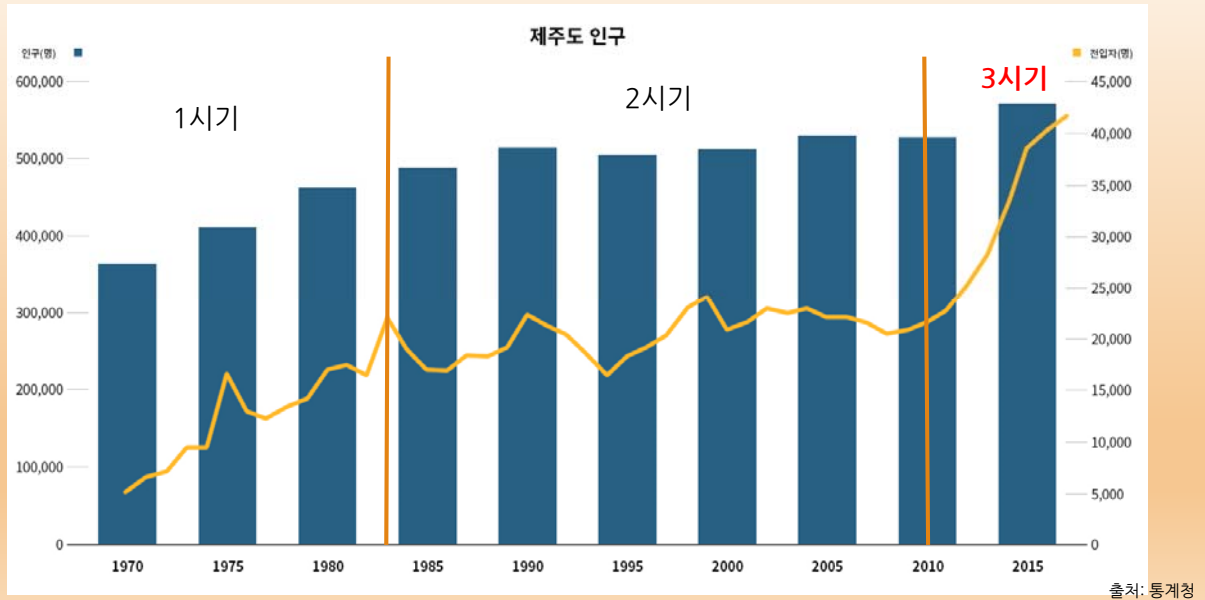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외국)
1965-70	100.0 (14,925)	15.7	5.7	3.1	1.5	4.3	5.4	36.8	8.5	16.7	2.3
1970-75	100.0 (20,056)	19.9	6.7	3.5	1.4	3.1	4.5	38.1	4.5	16.6	1.7
1975-80	100.0 (21,474)	23.4	5.2	3.0	1.2	4.0	3.4	28.5	6.5	16.4	8.4
1980-85	100.0 (25,421)	30.6	8.8	3.0	1.3	3.6	3.5	17.4	6.7	22.5	2.6
1985-90	100.0 (29,107)	29.0	10.3	3.6	1.1	4.2	3.1	15.9	7.5	23.8	1.5
1990-95	100.0 (32,124)	28.4	15.3	2.3	1.5	2.6	3.3	10.3	5.9	25.5	4.9

자료: 이창기(1999: 95)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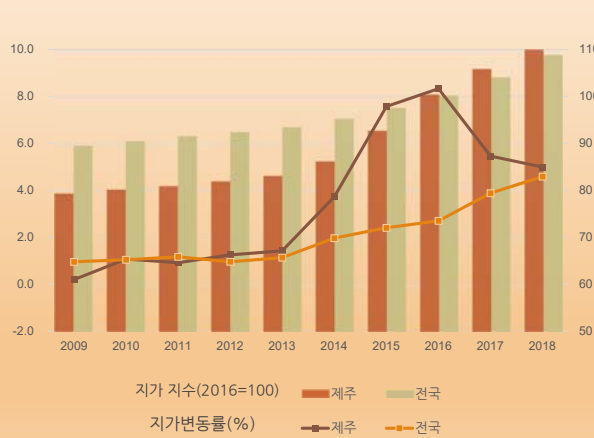
출처: 염미경, 2015, 65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제주도 인구 및 전입자 추이와 이주의 파동(자료: census)



전국-제주도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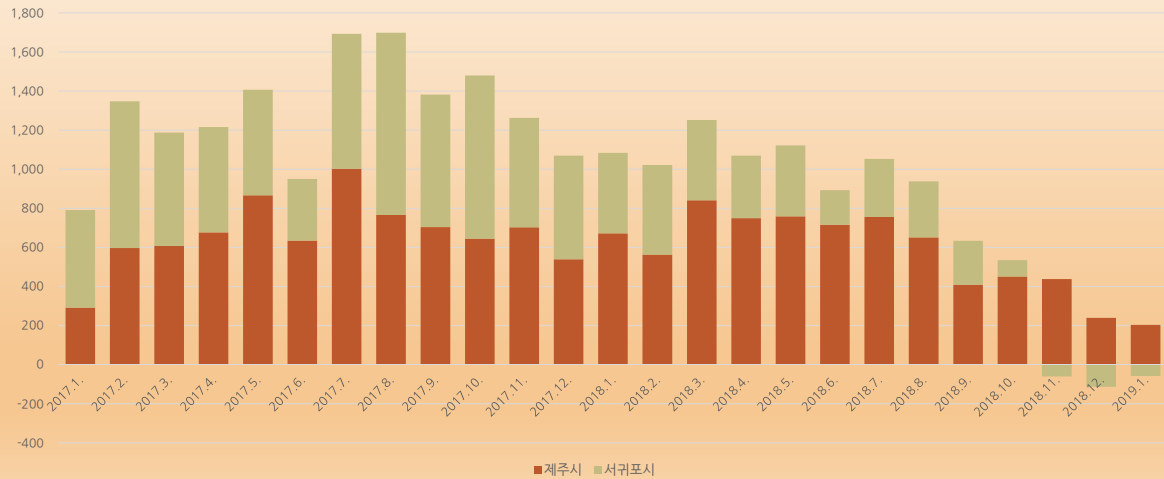


전국-제주도 아파트 ㎡ 당 가격 (2013~2018)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제주도 순이동(net migration) 월별 추이 (주민등록통계)



출처: 제주도청 통계자료

3. 제주 신이주민에 대한 주요 접근

① Ghetto-enclave continuum

- 이주민의 제주 내부의 정주 패턴에 대한 이해: 군집화(clustering)에 초점
- 군집화 된 커뮤니티로서의 전원주택단지
- Gentrification 및 greenification

② Production of space and spatial dialectics

- 제주에 대한 공간 담론의 상징성 및 담론화 과정: 제주의 재현
- 제주로의 이주 요인과 공간적 실천
- 제주 내부에서의 “lived space” 형성: 제주 현실에의 인식 및 재현적 실천

③ Reflexive rationality and positionality

- 합리성은 결정의 요인이기보다는 자기 성찰의 산물임
-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 및 제주에 대한 현실 인식의 프리즘 이해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3.1. “ghetto-enclave” continuum

- 게토

- 기존 원주민 또는 주류 사회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역량의 비교 열위
- 제도적, 구조적 차별
- 주류 사회로의 진입의 한계

- 엔클레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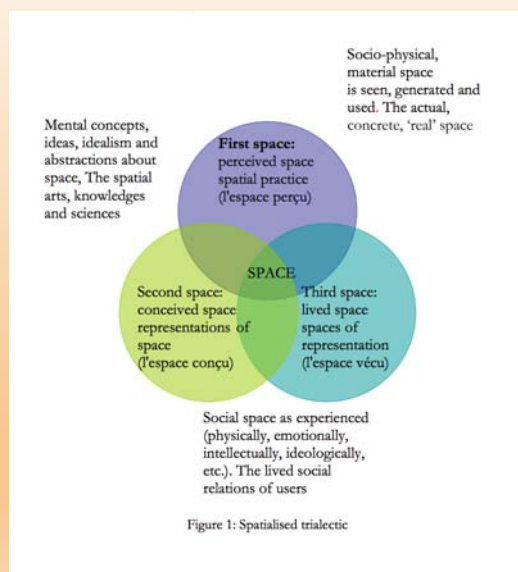
- 지배적 사회로부터의 자발적 분리: 탈로컬화
- 생활방식 유지: 인종적, 민족적, 계급적 차이 등 유지
- 상호부조(호혜성):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협업
- 문화적 보존 및 방어: 위치성에 기반을 둔 사회응집력 유지

Ghetto	Ethnic enclave
Dually segregated: a large majority of a minority group lives in it; a large majority in it belongs to a certain minority	Dually diluted: only a minority of the group resides in it; they form only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of the area associated with the group
Negative	Positive
Enforced	Voluntary
Expanding	Residual
Real	Symbolic
Threatening	Touristic
Permanent	Temporary

Source: Peach (2001: 13), modified.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3.2. Production of space and spatial dialectics



<Henri Lefebvre and Spatial dialectics>

- 공간적 실천(지각된 또는 경험된 공간)

- 공간적 실천으로서의 이주
- 개인의 위치성

- 공간의 재현(인지된 공간)

- 제주 외부에서의 미디어의 재현: 육지중심주의
- 제주 내부에서의 내적 담론 체계: 이분법적 산물

- 재현의 공간(상상의 공간)

- 지배적 공간: 자본이 지배하는 스펙터클로서의 공간
- 저항적, 대안적 공간: 장소성, 로컬리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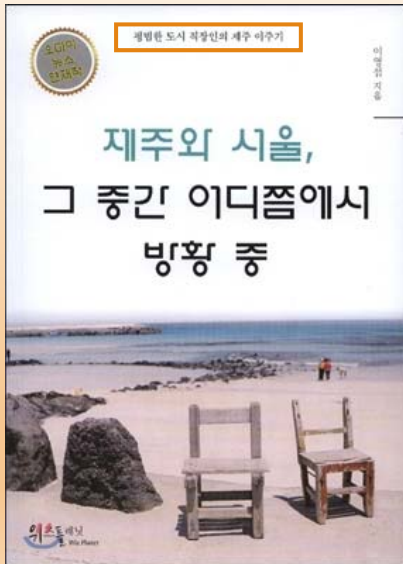
3.3. Reflexive rationality(reflexivity) and positionality

- 이주의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다변화, 다층화되고 있어서 선형적인 설명 방식으로는 해석이 곤란
- 성찰성(reflexivity) 또는 성찰적 합리성
 - 합리성은 결정의 요인이기보다는 자기 성찰의 산물임
 -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
- 구술에 대한 담론 분석: 개인 또는 가족의 제주로의 이주 과정을 어떻게 ‘필연적인’ 또는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정착 생활에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rewriting”을 해석하는 것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제주에 관한 대중 담론의 서사





이영섭, 2017, 제주와 서울, 그중간어디쯤에서방황중



김지은, 2017,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볼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 평범한 도시 직장인, 가진 것 없는 청춘
- 소심한 도시인
- 마음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



이강근, 2018, 서울농촌, 제주에서 자리잡기

제주 주제 에세이의 서사 구조

- 제주에 대한 낭만, 도시에서의 탈출
- 제주생활 적응기 (에피소드, 팁)
- 제주에서 누리는 일상의 행복,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남

프롤로그 진짜 제주 살기

01 도시를 떠나다

결심하다 · 도시의 삶은 고달프다 |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 건강검진 받던 날
떠나다 · 인생은 사모작 | 귀농귀촌 아카데미에 등록하다 | 떠나자, 제주도

02 제주에 발을 댄다

터를 잡다 · 제주는 생각보다 넓다 | 매월에 터를 잡다 | 어떤 집을 지을까
집을 짓다 · 연방에 집 짓기 | 기초 공사 시작 | 공사 중단과 컨테이너 생활 | 공사가 재개되다 | 뜬공이 떨어지다
안락할 무미다 · 도배와 장판 | 마당에 길 내기 | 잔디 정원 만들기 | 조명 설치하기 | 테라스 정비 | 타일 작업 | 페인트칠 | 주방 만들기
| 보조 세면대 설치 | 블라인드 설치 | 주차장 만들기 | 목공 작업 | 건축비를 정산
정비와 보수 · 방수 작업 | 무너진 돌담 세우기 | 시골살이에는 창고가 필수 | 대문을 달다 | 밭상에 라프를 치다 | | 솜을 카페로 꾸미다 |
화력난로 설치 | 테라스 만들기 | 태양광 전기 공사 | 강아지에게도 집을
내 손으로 만든 정원 · 나무를 구하다 | 나무를 심다 | 꽃과 나무 가꾸기

03 제주에 뿌리 내리기

농사에 도전하다 · 밭을 갈다 | 텃밭 가꾸기 | 잡초와의 전쟁 | 수확의 즐거움 | 가을 텃밭 농사
본격 농사짓기 · 호박 농사 | 콩 농사 | 고구마 농사 | 유채 농사 | 해바라기 농사
제주에서 먹고 살기 · 각종 호소 만들기 | 오리에 도전하다 | 수확 후 남은 농작물을 확보 | 낫시대 먹고 집 밖으로 | 물어소랑 에어비앤비
운영 | 제주를 선택한 이유들

04 나는 이제 제주 사람

정착하다 · 제주와 가족 | 재는 기루 | 한라산의 시계절을 오르다
살을 되찾다 · 건강검진을 다시 받다 | 삶은 여행처럼

대중 담론으로서의 제주의 생산: 제주/비제주의 이분법적 서사 구조

(미디어, 도서 등에 대한 content analysis)

제주

- 시골: 느린, 고정된 라이프스타일
- 비자본주의적: 공동체적, 호혜적
- 로컬리티: 전통적
- 자연: 청정
- 어린 자녀 양육에 유리: 자연주의적, 아폴론적 관점
- 자아(정체성)의 실현

비제주

- 도시: 빠른, 변화무쌍한 라이프스타일
- 자본주의적 관계: 개인주의적, 경쟁적
- 글로벌리티: 전통의 상실
- 인간: 오염
- 어린 자녀 양육에 불리: 인간주의적, 디오니소스적 관점
- 자아(정체성)의 상실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1. 주요 연구 문제

- 이주민의 이주 배경 및 동기에 작동하는 제주에 대한 지리적 상상은 무엇인가?
- 이주민이 정착 및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상의 지리와 실제의 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이주민의 positionality은 이들의 정체성 구성과 발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4-2. 심층 면담의 주요 질문(아래 OO군 사례와 유사)

연번	면담 주제	세부 질문 내용
1	본인 및 가족 소개	- 연명, 직업, 학력, 고향 - 가족 상황 및 가구 구성
2	전원생활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 이주 배경과 동기, 도시에서의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 직업 및 생애주기와의 연관성(가족사 또는 생애사) - 담양군 및 현 거주지를 선택하게 된 배경, 담양의 지역적 특성 - 다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차별성 인식
3	촌락으로 이주 과정 및 전원생활에 대한 의사결정과 준비	-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촌락으로의 이주에 대한 동의 과정 - 전원주택 건축 사항: 프로세스, 건축 특성 및 디자인, 자재, 조경 등 - 경제적인 측면, 건축 및 입주 준비 기간에 관한 사항 - 전원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건축 및 관리
4	현재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 담양 촌락성 및 근린지구 장소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 교통 접근성, 경제 및 문화생활, 촌락 어메티니 등의 라이프스타일 - 단지 내 주민 및 커뮤니티 생활의 특성, 조례 등의 제도적 측면 - 인접한 기존 마을주민들과의 관계 유지 및 변동
5	향후 비전과 계획	- 도시 또는 다른 촌락으로의 새로운 이주 및 활동 계획 - 전원주택단지 및 전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4. 연구방법

- 조사시기 : 2018년 6월 ~ 2019년 8월
- 면담대상자 : 10가구
 - 거주지역: 한경면(3), 애월읍(2), 제주시(2), 조천읍(2), 표선면(1)
 - 연령: 30대(1), 40대(4), 50대(2), 60대(2)
 - 이주기간: 2년 미만(3), 3년(3), 4년(2), 5년 이상(2)
- 면담조사 방법: 지역을 중심으로 Snowballing 기법을 활용하여 면담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주의 개인적인 맥락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주의 양상과 담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로 전입해 온 이유 및 과정, 현재의 커뮤니티 생활 패턴과 방식, 현재 제주 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후의 계획 및 비전 등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방법으로 1시간 30분~2시간 가량 인터뷰 함
- 연구 내용 분석 : 개인 프로필 분석 및 담론분석

5. 면담대상자 Profile



6. 제주 이주의 동기 및 배경

6.1. 아름답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자연

- 제주의 자연환경은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주는 낭만적인 배경으로 재현됨.

“여기는 바다가고 싶으면 바다 가고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보통 10분이면 바다에 가잖아요. 지상낙원이라 생각했죠(50대 여성 A씨)”, “예전에는 그냥 관광지였는데, 제주에 탁 내려와서 본거는 이 자연유산이 너무 보물적인 가치가 있는거예요... 자연적인 가치가 너무 대단한 곳이고, 진짜 가슴 벅찰 정도로 제주가 오는 거예요(50대 여성 H씨)”

- 근대적 자연관에 입각한 인간-자연의 이분법적 인식론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것 본질주의적 상상의 작동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기존 도시에서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하기도 함.

- 자연과 살아가는 삶에 적합한 연령층으로 노년층과 유소년층을 연결시키고 있음. 한편, 제주도에서의 생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이라는 지리적 상상은 부모의 입장에서 구성된 것임을 성찰하기도 함.



▲ 더덕분교 2018년 초등학교로 승격 (출처: 제주일보)

6. 제주 이주의 동기 및 배경

6.2. 기존 육지(도시) 생활에의 이탈, 새로운 삶의 방식의 추구

-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와 피로가 극에 달한 오늘날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제주라는 공간은 평화롭고 여유로움, 공동체적 삶 등이 포함된 촌락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반영 또는 목가적인 환경과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 상상되고 있었음



▲ C씨가 운영했던 카페

“서울권 안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멀리 떨어져있는 곳을 좀 원했었어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30대 남성 J씨)”

“카페가 혼자하기에는 좀 힘들었죠 저도 목수일한다고 나가있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하니까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쉬기로 했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힘들게 일하려고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니니까 (40대 남성, C씨)”

- 도시(서울)와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제주

서울-도시-경제중심의 삶-일, 직장 - 편리-빠름-욕심-불행
제주-촌락-여유있는 삶 -개인, 가족-불편-느림-만족-행복

6. 제주 이주의 동기 및 배경

6.3. 근접성과 단절성, 도시와의 선택적 단절과 Islandness의 추구

- 섬이기 때문에 도시와 단절된다는 점과 대비되는 도시와의 높은 접근성(국내 주요도시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이주민들이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중요 요인으로, 이주민들은 기존 도시에서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와는 일부 단절하면서도 도시에서 누리던 풍부한 어메니티를 향유하고 촌락 내의 자원(전원성, 로컬 먹거리, 자연환경 등)을 전유하고자 함
- 모빌리티 증대에 따른 서울(도시)에 대한 식민성의 증대
 - 모빌리티의 증대는 공간에서 권력관계의 증대 및 복잡성이 증대한다는 것 (Cresswell, 2010)
 - 제주가 '탈출과 심(힐링)의 공간'으로 명명될 수 있었던 까닭은 도시인에게 쉽게 접근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도시인의 입장에서 섬이 가진 특유의 Islandness가 강화되었기 때문임
 - 섬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유의 단절성, 자기폐쇄성은 도시인에게 독립적, 자유로움, 자급자족의 가능성으로 인식되며, 육지와 대비되는 경관적, 문화적인 이국성(exoticism)을 가진 공간으로 재현됨

7. 제주 정착과 적응, 상상의 지리와 실제의 지리의 만남

7.1. 낭만의 배경으로서 자연에서 실제의 지리로

- 물리적 환경은 제주의 낭만과 삶의 여유라는 지리적 상상을 작동시키는데 중요한 실체이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마주하는 낯선 자연지리적 환경과 전원생활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생태적인 요소 그리고 거리감의 적응이라는 실제의 지리와 만남으로써 지리적 상상의 변화과정을 거치게 됨
 - 도시 생활에서 자연은 제어되고(될 수 있고) 통제해야 할(통제할 수 있는) 수동적인 객체이자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촌락에서의 자연은 제어되거나 통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경계를 침범하는 적극적인 행위주체이다. 촌락생활은 배경이자 대상으로서 자연이 아닌 적극적인 행위주체인 자연과의 마주침이며, 자연은 적응하고 타협해야 할 상호관계의 한 주체로서 인식됨.
- 도시와 대비되는 촌락의 자연요소들은 이주자의 젠더, 연령에 따라 인식하고 향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
 - 어둠은 촌락의 고요함과 아름다운 별빛과 연결되어 낭만화되기도 하지만, 여성이나 아이의 경우 도시의 익숙한 밝음과 대비되어 두려움과 고립감을 상징하는 기표가 됨.

7. 제주 정착과 적응, 상상의 지리와 실제의 지리의 만남

7.2. 경제활동: 유연성과 불안정성의 증대

- 임금수준 전국 최하위,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제주도의 열악한 노동구조라는 현실은 이주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 측면임. 제주의 현실 노동지리를 마주한 이주자들은 카페, 펜션, 식당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3차 서비스업의 창업을 시도하지만, 경쟁업체의 난립과 경기변동에 취약한 관광업의 특성은 이들의 생계를 불안정하게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
 - 면담참여자 10명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잘 드러나는데,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이주해 온 5명의 경우 (도시에서는 비교적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입주한 D씨 외에는 정기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동시에 수입을 창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젊은 층으로 구분되는 나머지 5명의 경우는 정기적인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들과 구분되지만, 서울에서도 식당을 운영하던 J씨 커플 이외에는 자신이 종사하던 직업 이외에 펜션, 카페 등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
- 이주민의 위치성은 제주 개발에 따른 급격한 공간 변화에 대해 아쉬움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며 공간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양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7. 제주 정착과 적응, 상상의 지리와 실제의 지리의 만남

7.3. 사회관계: 구별짓기와 혼성적 주체성의 발현

- 이주민들은 자신들과 다른 언어, 생활방식 등 원주민과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주민-원주민이라는 이분법적 사회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주민의 대당인 원주민을 정의함으로써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함
- 또한 외부인이면서 내부인인 이주민의 위치성은 이주민들은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비교적 순응하고 적응하려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대규모 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인으로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보호를 주장하는 수호자적 입장을 취하는 양가적 정체성을 보임. 또한 이주민의 위치성은 원주민의 행태를 다시보게 하면서도 제주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주체성으로 발현되기도 함

8. 요약

- 이주 배경 및 동기에 작동한 상상의 지리: 1)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배경으로 간주되며 긍정적이고 낭만적으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근대적 자연관에 입각한 인간-자연 이분법적 인식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론은 이주민들의 행태를 구성하고 있음 2) 제주라는 공간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와 피로가 작동하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상되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도시와의 이분법적 관계 안에서 지리적 상상이 구성되고 있음 3) 도시인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제주島가 가지는 단절성, 자기폐쇄성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치환하며, 동시에 도시와는 다른 경관적, 문화적으로 이국적인 공간으로 생산하고 있음.

- 정착 및 적응 과정에서의 제주의 재현적 공간 구성: 1) 낭만의 배경에 불과했던 자연은 인간이 적응하고 타협해야 할 적극적인 행위주체이며, 이러한 지점은 젠더, 연령 등 행위자의 정체성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음 2) 경쟁과 바쁨에 회의를 느끼며 일종의 도피처가 되었던 제주로의 이주 후에도 경제활동은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도시보다 열악한 노동 현실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음. 동시에 이주민 급증에 따른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빠른 공간 개발의 측면은 이주민들에게 아쉬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이들에게 일종의 자본주의적 성공을 기대하게 하는 양가적 행태를 드러내게 하고 있음 3)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이주민은 원주민과의 관계설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음. 이와 동시에 외부자이면서 내부자인 이주민의 혼성적인(hybrid) 정체성은 원주민들에게도 그리고 제주 개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행위주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감사합니다.

(문의: kpark3@gmail.com)